

#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99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행동전략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동기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3.0%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성에서는 학업성취도는 성별과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으로 자아동기능력,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행동전략,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으로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전략과 감성지능의 자아동기 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college students in various cities. A total of 199 students were analyzed in the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 that behavioral strategy, a subarea of self-leadership, self-motivation ability, a subarea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utonomy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wo subareas of psychological well-being,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had an explanatory power of 13.0%. The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ound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Academic achievement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motivation ability, a subarea of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ral strategy, a subarea of self-leadership, and autonomy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wo subarea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shor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help nursing college students improve their behavioral strategy of self-leadership, self-motivation abil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autonomy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high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Self 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

Tel: Tel: +82-10-4201-4643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September 11, 2018

Revised (1st September 20, 2018, 2nd September 27,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사회,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1].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업적 선택을 어느 정도 결정해 입학한 상태이나 과중한 수업부담과 임상실습,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타 대학생보다 높게[2] 나타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안으로 학업성취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담감이 가중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예측되는 중요한 변수로[2], 이것은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가는 보는 것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측정지표가 되며, 개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졸업 후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 또한, 학업성취를 단지 학습 성취가 누적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나 작용으로 본다면 학생들이 학업성취에는 지적영역의 능력 이외에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실제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며[5],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아 대학 차원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6].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학업성취문제는 대학생에게 주요 관심사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예측 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다양한 상황에서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7]이며,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 행동을 나타낸다[8]. 또한,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9]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의 질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성지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에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대학생이 사회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10] 셀프리더십이 강조 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으로[11], 자신의 목표와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은 학업활동과 사회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12].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측면들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정도를 뜻한다[13].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은 학생 자신의 삶의 질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자신이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모두를 포함 하고 있다.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목표가 있는 학습을 통해서 얻는 모든 교육성과로 향후 취업, 진학 등의 진로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14],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데는 이수교과에 대한 평가결과로 학점(Grade Point Average: GPA)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성취도 분석을 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선발준거로 활용되기도 한다[15]. 선행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취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낮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만족도가 낮았다고[16] 보고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목표하는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 정도를 알아보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

- 업성취의 분포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J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IRB 승인번호: 1044297-HR-201804-009-01)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09부 이었고, 그중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0.15, 예측변수 11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8명이 요구 되어 설문지 미회수율 10%(17.8명)를 계산하여 더하여 본 연구대상자인 199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경험, 동아리활동여부, 형제자매 수, 인터넷사용시간, 사용용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는 학습자가 교육적 학습을 통해 얻는 모든 교육적 성과로[14]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 기능, 태도, 성적 등 학습자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모두를 학업성취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전 학기 평균성적(Grade Point Average: GPA)을 실점수로 측정하여 자가보고 한 학업성취로 정의하였다.

#### 2.3.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정서적 정보를 통하여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그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는 Goleman이 개발하고 Chung[19]이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자아감성 인식능력, 자아감성 조절능력, 자아동기부여능력, 대인관계 유지능력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13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7$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이었다.

#### 2.3.3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Manz [20]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Kim[21]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가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 중 행동적 전략은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등의 3개 요인과 인지적 전략의 자연보상의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 활동도입, 일에 좋은 면에 초점, 내적 보상에 집중 등 5개 요인으로 총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5$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5$ 였다.

#### 2.3.4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은 Ryff[13]가 심리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로 처음 개념화한 것으로 사람의 삶이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학적 척도들의 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는 Ruff와 Keyes[22]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등[23]이 수정. 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소로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6문항으로 합이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8$ 였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 학업성취도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동아리 활동여부, 형제. 자매 수, 리더십프로그램 참여여부, 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용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20명(10.1%), 여자가 179명(89.9%)이었으며, 1학년 63명(31.7%), 2학년 62명(31.2%), 3학년 45명(22.6%), 4학년 29명(14.6%)이었으며, 형제. 자매 수는 1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군이 102명(51.3%)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여부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군이 116명(58.3%), 리더십 교육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를 했다는 군이 91명(45.7%)으로 나타났다. 평균인터넷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 사용자가 59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용용도는 과제를 할 때 사용한 군이 92명(46.2%)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9)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0	10.1
	Female	179	89.9
Grade	Freshman	63	31.7
	Sophonmore	62	31.2
	Junnior	45	22.6
	Senior	29	14.6
Number of siblings	Alone	7	3.5
	1	102	51.3
	2	68	34.2
	3≤	22	11.1
Club activities	Yes	116	58.3
	No	83	41.7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school adjustment program	Yes	91	45.7
	No	108	54.2
Internet use on a day	1hrs ≥	59	29.6
	1-2hrs	49	24.6
	2-3hrs	37	18.6
	3-4hrs	23	11.6
	4hrs ≤	31	15.6
Purpose of using the Internet	Game	18	9.0
	Assignment	92	46.2
	Online surfing	39	19.6
	Shopping	9	4.5
	SNS	41	20.6
Total		199	100.0

**Table 2.**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ubjects (N=199)

Variables		n	%	M±SD	Range	t/F	p
Academic Achievement	4.0≤	31	15.6			96.45	<.001
	3.0-3.9	138	69.3				
	2.0-2.9	30	15.1				
Total		199	100.0	3.39±.49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y of recognizing one's own sensibility			7.56±1.29	1-10	32.51	<.001
	Ability of controlling one's own sensibility			10.02±1.75	1-15	30.51	<.001
	Ability of motivating oneself			11.16±1.89	1-15	32.97	<.001
	Ability of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7.53±7.17	1-25	34.69	<.001
	Total			46.29±5.14	1-65	127.14	<.001
Self-leadership	Behavioral strategies			33.24±4.57	1-45	102.44	<.001
	Cognitive strategies			48.17±6.33	1-70	107.19	<.001
	Total			81.41±9.65	1-115	118.93	<.001
Psychological wellbeing	Autonomy			26.78±3.85	1-48	98.11	<.001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27.71±4.68	1-48	83.42	<.001
	Personal growth			25.64±4.44	1-48	81.42	<.001
	Purpose of life			20.12±4.41	1-42	64.29	<.001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0.38±4.04	1-42	71.08	<.001
	Self-acceptance			26.87±4.70	1-48	80.51	<.001
	Total			149.60±19.17	1-276	110.08	<.001

### 3.2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업성취도는 4.5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3.0-3.9사이에서 138명(69.3%)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점수 범위는 1-6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6.29±5.14로 나타났다( $p<.001$ ). 하위영역으로 자아감성인식능력의 점수범위가 1-10점으로 평균값은 7.56±1.29, 자아 감성조절능력의 점수범위가 1-15점으로 평균값은 10.02±1.75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동기부여능력의 점수범위는 1-15점으로 평균값은 11.16±1.89이며, 대인관계유지능력의 점수범위는 1-25점으로 평균값은 17.53±7.17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1.41±9.65로 나타났다( $p<.001$ ). 하위영역으로 행동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45점으로 평균값은 33.24±4.57점이었으며, 인지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70점으로 평균값은 48.67±6.33 이었다. 심리적 안정감의 점수 범위는 1-276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149.60±19.17로 나타났다( $p<.001$ ). 하위영역으로 자율성의 점수범위는 1-48점으로 평균값은 26.78±3.85,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점수범위는 1-48점으로 평균값은 27.71±4.68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장의 점수범위는

1-48점으로 평균값은 25.64±4.44, 삶의 목적의 점수 범위는 1-42점으로 평균값은 20.12±4.41로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범위는 1-42점으로 평균값은 20.38±4.04로 나타났으며, 자아수용성의 점수범위는 1-48점으로 평균값은 26.87±4.70으로 나타났다( $p<.001$ )(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정감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성취도는 성별( $F=6.50, p=.012$ ), 학년( $F=2.73, p=.045$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3.42±.46으로 남학생 3.13±.6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에서 3.54±.39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 3.25±.54로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년( $F=3.00, p=.032$ ), 인터넷사용시간( $F=2.07, p=.086$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학년이 48.48±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이 44.86±5.43로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시간( $F=2.07, p=.086$ )에서의 사후분석결과 인터넷사용시간이 1시간 이내인 군(47.06±4.75)과 1-2시간이내인 군(46.95±5.74)이 4시간이상인 군의 44.06±5.59 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는 성별( $F=4.69, p=.032$ ), 학년( $F=7.10, p<.001$ ), 인터넷사용시간( $F=1.98, p=.099$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89.61\pm 6.8$ 로 남학생  $79.60\pm 2.91$  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86.72\pm 9.46$ 로 3학년  $77.68\pm 10.2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사용시간에서

도 1-2시간이내인 군( $83.79\pm 9.96$ )이 4시간 이상인 군( $78.70\pm 10.94$ )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리더십, 학교적응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서 ( $F=3.15, p=.077$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군은  $150.98\pm 17.58$ 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군의  $148.19\pm 20.67$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9)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13±.64	6.50	.012	45.80±1.09	-4.5	.653	79.60±2.91	4.69	.032	147.20±16.20	.703	.403			
	Female	3.42±.46			46.34±.38			89.61±.68			149.87±19.49					
Grade	Freshman	3.47±.50	ab	2.73	.045	46.31±5.30	ab	3.00	.032	83.23±38.82	ba	7.10	.000	147.22±20.43	1.573	.197
	Sophomore	3.34±.47	ab			46.27±5.80	ab			79.77±8.77	ab			147.66±14.75		
	Junior	3.25±.54	a			44.86±5.43	a			77.68±10.23	a			152.13±19.61		
	Senior	3.54±.39	b			48.48±4.38	b			86.72±9.46	b			155.00±23.12		
	Duncan	a<b				a<b				a<b						
Number of siblings	Alone	3.18±.35		.879	.710	47.85±3.33		1.09	.346	83.28±3.98		1.195	.297	149.42±26.85	.808	.832
	1	3.41±.46				46.08±5.32				81.65±9.87				149.87±19.34		
	2	3.35±.54				46.01±4.51				80.82±9.77				148.27±18.62		
	3	3.49±.50				47.59±6.41				78.70±10.94				152.54±18.40		
	3≤	3.49±.50				47.59±6.41				78.70±10.94				152.54±18.40		
Club activities	Yes	3.44±.49		1.65	.100	46.21±4.48		4.46	.505	81.80±9.92		6.72	522	149.68±19.91	4.92	.484
	No	3.32±.48				46.39±.55				80.86±9.29				149.49±18.19		
Participation in a leadership and school adjustment program	Yes	3.43±.49		.931	.352	46.57±.52		.705	.482	81.26±.99		.036	.850	150.98±17.58	3.15	.077
	No	3.36±.49				46.39±.55				81.53±.94				148.19±20.67		
Internet use on a day	1hrs ≥	3.35±.52		.693	.597	47.06±4.75	b	2.07	.086	82.44±9.95	ab	1.98	.099	147.47±19.25	.376	.826
	1-2hrs	3.48±.48				46.95±5.74	b			83.79±9.96	b			152.00±20.25		
	2-3hrs	3.37±.49				46.24±4.41	ab			79.51±8.78	ab			149.59±19.36		
	3-4hrs	3.43±.50				45.95±4.64	ab			80.39±6.19	ab			154.88±16.07		
	4hrs ≤	3.32±.45				44.06±5.59	a			78.70±10.94	a			149.41±19.89		
	Duncan	a<b				a<b				a<b						
Purpose of using the Internet	Game	3.46±.46		.766	.775	46.00±5.98		.709	.853	78.94±8.71		1.105	.325	146.94±18.56	.834	.792
	Assignment	3.42±.48				46.89±4.58				81.81±8.83				150.58±19.92		
	Online surfing	3.46±.48				45.94±7.24				83.56±12.72				150.17±20.01		
	Shopping	3.17±.67				47.00±3.89				82.44±11.53				154.88±20.27		
	SNS	3.28±.49				45.24±4.58				79.31±9.65				146.87±15.84		

### 3.4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성취도는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 $r=.147, p=.037$ )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행동적 전략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54, p<.001$ )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동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 $r=.146, p=.039$ )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r=.178, p=.012$ )과 긍정적 대인관계( $r=.127, p=.075$ )에

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90, p<.001$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자아감성인식능력( $r=.278, p<.001$ ), 자아감성 조절능력( $r=.329, p<.001$ ), 자아동기능력( $r=.552, p<.001$ ), 대인관계 능력( $r=.401, p<.001$ )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 $r=.202, p=.004$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자율성( $r=.227, p<.001$ ), 자아수용성( $r=.477, p<.001$ )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 $r=.158, p=.026$ )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인 자율성( $r=.143, p=.043$ ), 자아수용성( $r=.449, p<.001$ )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는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과 셀프리더십은 감정지능,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ubjects (N=199)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r	p	r	p	r	p	r	p
Academic Achievement	1							
Self-leadership	.147	.037	1					
Behavioral strategies	.254	.000	.837	.000				
Cognitive strategies	.041	.561	.919	.000				
Emotional intelligence	.044	.534	.590	.000	1			
Ability of recognizing one's own sensibility	-.002	.979	.278	.000	.460	.000		
Ability of controlling one's own sensibility	.023	.744	.329	.000	.676	.000		
Ability of motivating oneself	.146	.039	.552	.000	.722	.000		
Ability of maint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34	.632	.401	.000	.759	.000		
Psychological wellbeing	.117	.101	.202	.004	.158	.026	1	
Autonomy	.178	.012	.227	.000	.143	.043	.843	.000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105	.141	.043	.546	.018	.803	.821	.000
Personal growth	-.015	.838	-.006	.936	.026	.710	.809	.000
Purpose of life	.077	.283	-.157	.017	-.154	.030	.727	.000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7	.075	-.120	.093	-.105	.140	.731	.000
Self-acceptance	.013	.859	.477	.000	.449	.000	.626	.000

### 3.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감정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648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57-0.8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101-1.210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변수로 하여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5.95, p<.001$ ), 학업성취도를 수정된  $R^2$ 는 13.0% 설명하였다. 셀프리더십( $\beta=.148, p=.037$ ),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행동전략( $\beta=.262, p=.005$ ), 감정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동기능력( $\beta=.174, p=.057$ ),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개인적 성장( $\beta=-.346, p=.038$ ), 긍정적 대인관계( $\beta=.219, p=.043$ )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ubjects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2.527	.424		5.95	.000
Self-leadership	.008	.004	.148	2.09	.037
Behavioral strategies	.028	.010	.262	2.84	.005
Emotional intelligence	-.007	.008	-.072	-.82	.414
Ability of motivating oneself	.045	.024	.174	1.913	.057
Psychological wellbeing	.002	.002	.093	1.29	.196
Personal growth	-.039	.019	-.346	-2.088	.038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7	.008	.219	2.036	.043

$R^2=.162, \text{Adj } R^2=.130,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를 13.0%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의 연구[24]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확인 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에서는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25]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에서는 학년과 인터넷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컴퓨터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전공지식 습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리더십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26]의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측요인들의 평균값으로 살펴 볼 때, 셀프리더십의 점수 범위는 1-115점으로 평균값은 81.4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행동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45점이며, 평균값은 33.24점, 인지적 전략은 점수범위가 1-70점으로 평균값은 48.17점으로, 행동적 전략이 인지적 전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7]에서도 행동적 전략이 높고 인지적 전략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로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 부분의 셀프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감성지능은 점수범위가 1-65점으로 평균값은 46.29점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 유지능력은 점수 범위 1-25점에 평균값은 17.53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자아감성 조절 능력은 1-15점에 평균값 7.5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28]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과민해지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아감성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 범위는 1-279점으로 평균값은 149.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높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조절하고 일을 수행하며 삶의 만족도를 증가[16] 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대인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 정서의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및 내적 자아가 강화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학업성취도와 셀프리더십의 행동적 전략( $r=.254, p<.001$ )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행동적 전략은 목표설정, 자기보상, 연습 등의 요인으로, 대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한 것으로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동기능력( $r=.146, p=.039$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과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r=.178, p=.012$ )과 긍정적 대인관계( $r=.127, p=.075$ )도 학업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29]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추후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하겠다.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를 13.0%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및 심리적 안녕감의 역량을 키우는 중재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신감 고취 및 리더십 교육과 개인의 감성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활용하는 감성지능의 활용 및 조절훈련[30]과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16]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연구결과이며, 자가 보고한 학업성취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동일하게 확대하고 확률표집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 하였으며,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이었고, 분석대상은 199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행동전략과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인 자아동기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3.0%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성에서는 학업성취도는 성별과 학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와 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으로 자아동기능력,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행동전략,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으로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학습에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보상 하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전략과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감성지능의 자아동기 능력,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 및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학업성취도에 대한 반복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며, 또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점 이외의 표준화된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1] Y. K. Kim, H. Joo, "The Effects of stress and health statu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6, no. 1, pp.747-757, 2014.
- [2]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77-185, 2013.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3.19.2.177>
- [3]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5, pp. 2487-2500, 2011.
- [4] M. A. Lee, "The Study of the effect of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vol. 19, no. 1, pp. 161-181, 2006.
- [5] S. Y. Kim, H. I.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od orienta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0, no. 2, pp. 307-328, 2013.  
DOI: <https://doi.org/10.16983/kjps.2013.10.2.307>
- [6] H. Y. Go, "The difference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1, pp. 126-147, 2012.  
DOI: <https://doi.org/10.15753/aje.2012.13.1.006>
- [7]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s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2-24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8] P. N. Lopes, M. A. Brackeet, J. B. Schutz, A. Sellin, I.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vol. 30, pp. 1018-1034, 2004.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9] J. D. Mayer, P. Salovey, D. Caruso, "Mod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J. Stemberg(Ed.)", Handbook of intelligence(1st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7947.019>
- [10] Y. S. Lee, S. H. Park, J. G.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11] C. C. Manz, Sims, H. P. Jr,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 1989.
- [12]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freshman's

- self-leadership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6, pp. 43-56, 2013.
- [13]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14] W. S. Kim, “The Effects of Time Management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7, no. 4, pp. 1-17, 2013.
- [15] J. I. Lee,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Vocat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2, pp. 227-246, 2012.
- [16] E. S. Lee, Moderated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0, no. 3, pp. 470-482, 2016.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6.30.3.470>
- [17]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8] D. Golman,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1995.
- [19] K. Y. Chung, “Effects of dance experie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20] C. C. Manz,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21] M. J. Kim,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Degree Doctor, 2007.
- [22] C. D. Ryff, C. L.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 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4, pp. 719-727, 1995.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69.4.719>
- [23] M. S. Kim, H. W. Kim, G. H. Ch,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Vol. 15, no. 2, pp.19-39, 2001.
- [24]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Educational Inquiry, Vol. 19, pp. 101-115, 2004.
- [25] Y. K. Yang, K. S. Han, M. K.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26]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36-604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36>
- [27] S. H. Han, H. S. Yu,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s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131-140,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131>
- [28]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380-388,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380>
- [29] E. S. Moon, S. H. Kang,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motivational variables related to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2, no. 1, pp. 1-15, 2008.
- [30]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4, no. 6, pp. 682-696, 2014.  
DOI: <https://doi.org/10.4040/jkan.2014.44.6.682>

##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교수

&lt;관심분야&gt;

간호교육, 건강증진, 감염관리